

여름호(Vol. 40)

서신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6-7)

계간 서신원 | 2019년 2(여름)호, 통권 40호

발행인 현유광 | 편집인 장석조 | 창간일 2010년 9월 9일 | 발행일 2019년 6월 17일 | 발행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출
판부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 | 전화 02-845-7711 | 홈페이지 <http://www.sb.ac.kr>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성령님, 감사합니다!



현유광

저는 성령님이 좋습니다.

성령님께 종종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저를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저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올해는 6월 9일이 성령강림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 후 일곱 번째 주일이, 성령님이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임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유월절 후 오십일이 될 때에 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五旬節)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칠칠(七七)절 또는 맥추(麥秋)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음력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부활절이 매년 달라지고 이에 따라 오순절 성령강림절도 날자가 매년 바뀝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정하는 방법은 주후 325년 마케도니아 공회에서 정해졌다고 합니다. 즉 매년(每年) 춘분(春分 양력 3월 21일) 이후 첫 보름달(음력 15일) 다음의 일요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따라서 부활주일은 빠르면 3월 22일에 오고, 늦으면 4월 25일 에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保惠師 파라클레토스: 옆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는 변호사, 수호자, 중재자, 협조자를 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나의 사정을 아뢰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실 때는 오순절이 몇 주 지난 6월 말이나 7월 초일 것입니다. 성령강림주일이 지났다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곁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자 대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진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나 여기 있다. 무엇을 도와줄까?”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답하십니다. 매일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도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 주님의교회

(조병섭 목사/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양녕로266/010-3634-8016)
(chobshappy@hanmail.com)



주님의 교회를 개척한지 2년을 맞이하며

살림!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주님의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는 8명의 동역자와 저희 가족(아내, 아들 두명) 4명이 하나가 되어 총 12명이 2016년 12월31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상도역 근처 상가 2층에서 첫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교회를 개척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한편의 은혜의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교역자로 5년째 사역을 하던 중 금요기도회 때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다닐 때 개척교회의 사명을 주신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개척하기 2년 전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아빠가 교회를 개척하면 반주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두명은 순종함으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교회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기쁜 마음이 넘쳤지만 한쪽에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 또한 가득했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다. 교역자로서 모아둔 물질도 없고, 같이 함께할 동역자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2016년 10월 사역하던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지금의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7월20일 순장교단 소속교회로 개척설립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주위에 많이 어려운 분들과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받은 쌀과 김치는 다른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나누어 주고, 같이 함께 전도할 사역자가 없는 교회를 가서 함께 전도를 해드립니다. 그때마다 제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주님의교회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교회의 이름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저희 주님의교회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상도동의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교회를 향한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호강하는 전도사

목회학 전공 5학차 이주철 (관천교회 전도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호강을 같이 누리시자고 성도님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로 초대합니다.

꼭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호강하는 전도사”입니다.

대천 교회 옆길, 보라매공원과 붙어있는 뒷동산을 점심시간에 산책을 즐기러 혼자서 걷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진짜 호강하고 있네.”

이 나이에 학교 다니지, 하고 싶은 공부하지, 학교에서 젊은 학우들과 같이 젊은이들 좋아하는 메뉴로 점심 먹으러 다니지, 바비큐 파티도 하지, 젊은이들과 친구처럼 지내지, 게다가 조금 더 나이 먹었다고 예우도 받지, 이런 대접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돈 갖고 이런 서비스 해 주는 곳 찾으려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못 찾을 겁니다.

신학대학원(신대원)에 들어 온 첫 학기, 정말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신약, 목회, 신조(교리), 개혁신학, 히브리어 그리고 수사학적 글쓰기 모든 과목이 평소에 배우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이었고 어떤 것은 그야말로 일생에 있어 한 번 배워봤으면 하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2학기도 역시 화려했습니다. 교회사, 구약, 헬라어, 예배학, 바울서신, 조직신학! 마침 그 학기에 새로 우리 학교로 부임한 교수들과 기존에 계시던 교수님들의 넓고 깊고 어떤 때는 신기한 강의 내용에 와! 하는 감탄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신학은 “모든 학문의 꽃”, “학문중의 학문”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신학이 제대로 기초를 잡고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3,4세기 이후, 적어도 서양에서는 모든 학문이 신학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모든 학문이 신학을 위해 존재했다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로 보면 그 위세가 가장 막강했던 중세교회 시대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학을 통해서, 신학을 위해서 모든 학문이 발달하고 활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크고 방대한 신학의 어느 부분을 담당했는지, 각각의 교수님들의 강의는 신학적인 것은 물론 역사, 문학, 문화, 더욱 특별히 철학까지 마음대로 넘나드는데, 그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내용의 화려함에 황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실제 목회 경험과 개인의 신앙 경험, 통찰력, 오랫동안 국내외에서의 공부 기간과 그 기간 동안 겪었던 학생으로서, 목사로서,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마음과 그 긴 시간의 인내와 가끔은 겪기도 했을 고통과 번민의 느낌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장로님이 하셔야겠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나이가 제법 든 분들이 신대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특이한 케이스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신대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교역자로 섬기겠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강의와 경진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나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저기에 할 일이 많네. 그렇지만 내가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고 일이 너무 커. 나는 못 해.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이 필요 할 텐데 나는 이미 젊지 않아. 늙었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왜 네가 혼자 다 하려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 그 다음은 후배들이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면 정작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내년에 우리나라로 육십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선후배님들, 친구또래 성도님들께 남녀불문 권해 드립니다.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호강하시자구요. 마음이 젊은 학생이 다시 되어 기쁘고, 나이 더 먹어서 몸이 말 안 듣기 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으니 기쁩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과 같이 성경을 공부하니 기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게 되어 기쁘고, 나이도 좀 먹은 사람이 전도사 한다고,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주님 은혜 안에서 사랑받으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호강을 같이 누리시자고 성도님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로 초대합니다. 꼭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발전기금후원안내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후원자님과 가정과 수고하시는 일들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여안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에 뜻을 두고 계신 교회, 기업, 졸업생,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월 1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1구좌 = 월 5,000원, 10구좌 = 월 50,000원) 기한은 1년 또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후원해주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070)-7169-4100 손계속 팀장에게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사이 전화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후원 국민은행 040001-04-16708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농협은행 301-0043-7048-1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계좌로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송금하신 후 (070)-7169-4100으로 후원 목적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루디아 장학회

회장 김예자 권사(창대교회)



살롬~ 안녕하세요.

루디아 장학회 41회~42회를 맡은 창대교회 김예자 권사입니다. 서신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궁한 발전과 성장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우리 루디아 장학회의 발전사를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처음 시작은 1978년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현 염천교회)에서 본 교단의 교역자 수련회시 정용범 권사의 권으로 권사 10여명이 본 교단 여 교역자 양성 목적을 위해 함께 돕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 때 모임의 명칭을 루디아 장학회로 정하여 41년이란 많은 세월동안 순장 지교회의 권사님들의 기도와 열망과 충성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가고 있습니다. 1998년 6월부터는 서신원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루디아 장학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곳에 kindling(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또 하나의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사 어려운 개척교회에도 적은 액수나마 도움의 손길을 보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루디아장학회 권사님들의 마음이 하나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41회 루디아장학회 수련회

루디아장학회는 지난 4월 26-27일 팀비전센터에서 이근우 목사(금하우리교회)를 강사로 하여 모시고 “다시 들어야 할 복음”(롬1:8-17)이란 제하의 말씀을 듣고 나눴다. 그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은 신자의 마음 안에 지식과 사랑이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일어나는 경외심과 이끌리는 사랑은 경건의 핵심도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존전에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적(신자로서의 마땅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번 루디아장학회 수련회의 주제를 로마서를 통해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어디인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늘 점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 내야만 합니다. 그런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속화된 개념이 개인과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공부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성숙한 루디아 장학회원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부금 내역 (2019.03.01. ~ 2019.05.30.)

기부자명	금액	기부자명	금액	기부자명	금액	기부자명	금액
강미량	20,000	노수덕	20,000	이정희	60,000	최택규	90,000
강미영	150,000	박미란	20,000	이중구	1,000,000	최한이	360,000
강영숙	100,000	박소순	90,000	임용태	60,000	한명학	10,000
강화순	30,000	박순자	30,000	임진화	60,000	한신희	10,000
고명성	30,000	박순희	30,000	장명분	30,000	현나영	90,000
공인애	40,000	박영복	20,000	장석조	40,000	현소영	90,000
구영희	10,000	박영선	30,000	장시봉	110,000	현유광	2,050,000
구희원	30,000	박영심	150,000	장영철	50,000	현윤재	90,000
권선애	20,000	박예순	30,000	장인성	30,000	황기연	60,000
권정남	10,000	박종숙	60,000	전계현	30,000	황태근	20,000
권태연	30,000	박지호	60,000	전성희	120,000	황희자	30,000
권태영	60,000	박천수	60,000	전양순	30,000	루디아장학회	5,000,000
기성숙	100,000	서상국	5,000	전용현	60,000	전국장교회	2,000,000
길기환	20,000	서현선	200,000	전재덕	500,000	거자씨교회	155,000
김군자	70,000	손계숙	60,000	전정자	10,000	관천교회	140,000
김민석	40,000	신미경	10,000	전충현	660,000	금하우리교회	200,000
김병호	30,000	신은주	60,000	정보원	60,000	대천교회	1,792,300
김복기	10,000	심양숙	110,000	정복희	30,000	동신교회	290,000
김석열	300,000	심은혜	300,000	정선녀	60,000	동천교회	6,104,000
김선성	30,000	안인순	10,000	정성기	60,000	동천교회유니게션교회	60,000
김선종	20,000	안춘희	10,000	정은희	100,000	새빛중앙교회	300,000
김성희	30,000	양명환	20,000	정정희	30,000	새소망교회	221,000
김순금	10,000	양영자	300,000	조경휘	15,000	서검교회	62,000
김순옥	10,000	오미경	20,000	조영철	60,000	성산교회	400,000
김승자	30,000	오애숙	1,000,000	차명란	10,000	송덕교회	824,000
김여진	40,000	우윤혜	60,000	천지용	20,000	신원예담교회	3,270,000
김영애	60,000	유승인	30,000	최경림	30,000	안천교회	3,000,000
김영주	120,000	유현희	320,000	최근현	300,000	염천교회	300,000
김은태	60,000	윤석연	10,000	최동일	30,000	영암교회	1,000,000
김준모	15,000	윤성자	30,000	최손생	30,000	영천교회	628,000
김창경	120,000	이경아	30,000	최수연	60,000	예심교회	35,000
김춘자	10,000	이명순	30,000	최순봉	400,000	좋은교회	300,000
김현숙	60,000	이성매	20,000	최영숙	90,000	창대교회	1,008,000
김혜숙	40,000	이세진	60,000	최종윤	10,000	춘천교회	550,000
나성엽	30,000	이예찬	20,000	최종임	10,000	큰샘교회	920,000
남분식	20,000	이용대	30,000	최주창	20,000	한천교회	1,500,000
						해맑음교회	532,000



순장교단 · 서신원 소식

서신원 경건회 및 루디아 장학회 회장단 내방

지난 5월 28일(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봄학기 마지막 경건회가 있었다. 현유광 총장이 인도하였고 강 철 목사(이사장, 대천교회 담임)가 출애굽기 4:1-9을 본문으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서신원이 루디아 장학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루디아 장학회 회장 김예자 권사와 총무 유혜숙 권사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지난 2000~2016년 약 17년 동안 루디아 장학회는 서신원을 위해 약 2억 정도, 2017~8에는 4천만 원, 올해 3월에 5백만 원을 장학금으로 후원하였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모든 루디아 회원들이 현금만 아니라 기도로 서신원을 후원하고 있어 감사했다.



신학교 주일, 교수들 교단교회 방문

3월 3일(주일) 본교 교수들은 교단교회(동천교회, 대천교회, 창대교회, 영암교회, 송덕교회, 안천교회, 관천교회, 해맞음교회 등)를 방문하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단의 여러 교회들은 신학교 주일 특별헌금으로 격려했다(헌금 내역은 홈페이지 후원현황 참고). 현유광 총장은 취임 이후 교단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다. 본교는 교단교회가 설교나 강연으로 강사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섬기려고 한다.

스승의 날

지난 5월 20일 스승의 날을 맞아 옥상 정원에서 원우들은 스승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바비큐 파티에 담아 전했다.

대천교회 50주년 기념대회

대천교회(강철 목사)는 지난 6월 2일 설립 50주년 기념예배 및 감사음악회를 열고 은혜로 감사로 예배로 함께 해온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다.

흑곰복스 도서기증

도서출판 흑곰복스는 목회와 신학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도서를 본교에 기증했다.



순수신앙, 진리탐구, 바른인격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모집

신사칭배를 거부한 이계실 목사 (평양신학교 제 26회 졸업)와 그 순수 신앙을 계승한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신학대학원대학교

모집학과목	2019년 대입 (2020년 지원가능)	교수소개
박사 (Ph.D)	4명	총장 현유광 규약 정성진 박영복 신학 최순형 장석조 이태성 조직 이종민 지태열 역사 김대안 실천-선교 현유광 배은섭 이영현 상담 김규보 고성실 사회복지 강영숙
신학석사 (Th.M) - 성경주해, 신·구약학, 조직신학	4명	
문학석사 (M.A) - 상담전공 & 사회복지전공	4명	
목회학석사 (M.Div)	3명	

※ 인·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원서접수 2019년 6월 1일(토) - 7월 10일(수)까지 전형일 2019년 7월 12일(금)

문의: Tel. 02-845-7711 또는 본교 홈페이지 www.sb.ac.kr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4번출구에서 도보5분)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